

국내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적 분석

A Discourse Analysis to Public Library Ecosystem in Korea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3.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현실과 전략 |
| 2. 도서관 생태계의 중요성과 지형 | 3.1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현주소와 인식 |
| 2.1 도서관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펙트럼 | 3.2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분석과 전략 |
| 2.2 도서관 생태계의 원리와 지형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화를 통한 개선·확장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와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기본원리와 구조적 지형을 해명하고 현주소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차용한 전략적 방안(카르마 법칙을 적용한 도서관의 정체성 및 공공성 보장, 미네르바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한 사서직의 주체성 및 전문성 강화, 파레토 원리를 응용한 자료서비스 및 장서관리의 최적화, 부정적 후광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열람실 축소와 비교우위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가우스 분포를 준수한 생애주기별 이용편차 해소, 이카루스 역설을 반추한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과 이용친화형 공간화, 그레삼 법칙의 경계를 위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시스템화, 그리고 폼페이 역설을 반면교사로 삼은 소통강화와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improvements and expanding strategies of the public library ecosystem. For this goal, researcher reviewed and analyzed the realistic landscapes and social recognitions about the public library ecosystem as local public goods, and discoursed the basic principles and structural terrain of public library ecosystem based on natural ecosystem. As a result, researcher proposed multifaceted alternatives (ensure library's identity and publicity applying Law of Karma, strengthen librarian's professionalism on the premise of overcoming the Minerva's syndrome, optimize the library service and collection management based on the Pareto principle, reduce reading room and differentiated program through resolution of Halo effect, eliminate usage bias by life cycle based on the Gauss distribution, acceptance of the digital paradigm and use-friendly spatialization that ruminates the Icarus paradox, incorporate small library into public library system throug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Gresham's law, and enforce communication and spread social and cultural value through the practice of the Pompeii paradox).

키워드: 자연생태계, 도서관 생태계, 공공도서관 생태계, SWOT 분석, 담론적 분석

Ecosystem, Library Ecosystem, Public Library Ecosystem, SWOT Analysis, Discourse Analysis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17년 1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2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5-27,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1.005]

1. 서론

그리스어 'oikos'(집)를 어원으로 하는 생태학(ecology)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조사·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용어는 1866년에 독일 식물학자 헤켈(E. Haeckel)이 제시하였고(Bodini and Klotz 2002, 1), 이를 바탕으로 1930년 옥스퍼드 대학 식물학자 클라팸(A.R. Clapham)이 조어하였다. 1935년에는 텐슬리(A. Tansley)가 생태학을 정제·확산시키기 위하여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는 생태계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가령 숲은 다양한 동식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각각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소비되는 산림생태계이다. 그 구성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환경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다시 기능을 중심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세분할 수 있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상호순환 및 평형관계를 유지한다. 후자는 생물적 요소의 환경을 구성하는 비생물학적 인자를 의미하며 물질과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자가 무기물(물, 공기, 흙, 질소 등)을 유기물(탄수화물, 단백질, 부식질 등)로 변환하고 소비자와 분해자를 거쳐 무기물로 회귀·순환한다. 따라서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반복 순환하는 구성요소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생산자는 소비자(1차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상위 소비자(2차 또는 3차 소비자 등)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환언하면 상위 소비자는 하위 소비자(또는 생산자)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포식단계에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소비자의 그것보다 많고, 상위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계 순환원리는 비록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공공도서관에도 적용된다. 지식정보 생산자가 출발지라면 사서가 분해하고 갈무리한 자료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외부 환경여건을 조합하여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다양한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교란징후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인한 도서관 우회현상, 인쇄자료와 전자매체의 융합적 난제, 제3섹터 등을 통한 위탁경영 증가, 작은도서관 지상주의, 평생학습관 등과의 경쟁구도 심화, 인적 역량의 한계와 서비스 저하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생태계의 기본구조에 입각한 도서관 생태계의 원리와 지형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생태계를 진단하고 건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불교의 Law of Karma, 신화 중의 Minerva's syndrome과 Icarus paradox, 경영경제학 분야의 Pareto principle과 Gresham's law, 심리학의 Halo effect, 수학과 통계학의 Gauss distribution, 역사고학의 Pompeii paradox 등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차용하여 공공도서관 생태계를 담론화하고 전략적 지향성을 모색한다.

2. 도서관 생태계의 중요성과 지형

2.1 도서관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펙트럼

2.1.1 도서관 생태계의 함의와 중요성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Homer)의 영웅 서사시를 대표하는 『Iliad』와 『Odyssey』에 등장하는 아고라(Agora)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등 당대를 호령하던 석학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철학, 정치, 과학, 예술, 상업 등)를 대상으로 대중과 소통하던 집회장소이자 고대 그리스의 지식생태계 요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의 인터넷 공간은 지구촌 지식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생태계 거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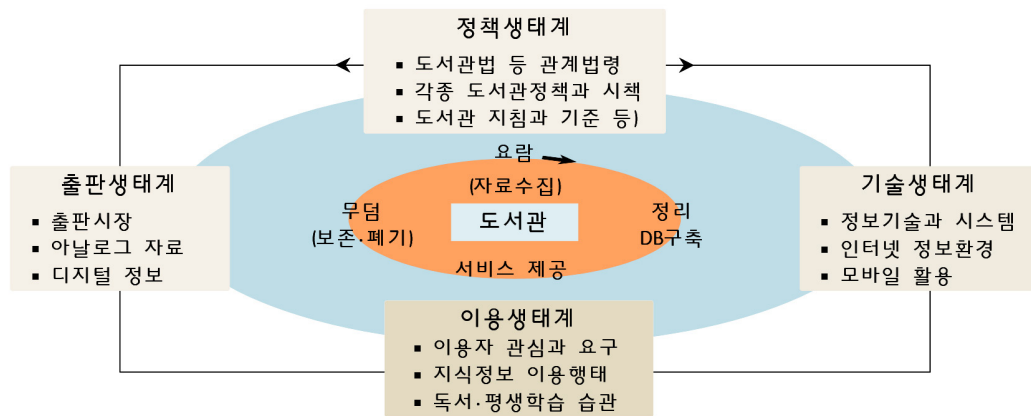
그렇다면 정보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출발점은 단순한 일반적 현상을 의미하는 사실(fact)이다. 그 다음 단계인 데이터는 사실을 객관화한 것이고, 정보는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목적)에 따라 정리·가공한 것이며, 지식은 가공·축적된 정보의 정제과정 및 가치부여를 통하여 보편화된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 등을 총칭한다. 요컨대 개념적 측면에서는 '사실 → 데이터 → 정보 → 지식'으로 구체화된다. 그 중에서 정보에 생태계를 접목한 정보생태계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각종 콘텐츠와 주제어가 생산과 축적, 개방과 소비, 재생산 등의 순환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개체(콘텐츠, 주제어, 생산자, 소비자, 관리자, 색인자 등)가 협력하는 기술공학 중심의 정보환경'이다(유재미, 오철호 2011, 7). 1991년에 폴(G. Por)이 처음 사용한 지식생태계는 다양한 지식을 창출·활용하고, 유통·확산시키는 집단(개인, 조직)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는 지식공간을 말한다. 인터넷이 정보생태계 거점이라면 도서관은 지식정보 생태계의 요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생태계(library ecosystem)는 다양한 지식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과 이용,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무결성 보존관리와 전수 등과 관련된 유기체의 법제·정책적, 조직행동적, 사회문화적, 정보기술적 환경과 그들의 상호작용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생태계 내지 정보생태계가 온전하려면 자료의 수집·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중시하는 도서관이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전문가가 주도하는 적절한 지식정보가 적시에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야 지식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최희운 2006, 397-416). 환언하면 도서관 생태계가 건강해야 지식정보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도서관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이유, 이용자 만족도, 사회문화적 가치도 제고될 수 있다.

2.1.2 도서관 생태계의 스펙트럼과 특징

지구촌 지식정보는 다양한 주체와 경로를 거쳐 유통된다. 이를 지식생태계로 접근하면 생산자와 출판사, 수집·제공기관, 지역사회와 이용자, 인터넷 정보환경 등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식생태계의 구심체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 생태계의 스펙트럼을 거론할 때는 <그림 1>처럼 지식정보의 요람(생산)에서 무덤(제작·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연계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을 감안한 도서관 생태계의 범주와



〈그림 1〉 도서관 생태계의 스펙트럼

대상, 구성요소와 내용을 자연생태계나 정보생태계와 비교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생태계의 출발지는 지식정보 생산자이며, 종착지는 사회이다. 즉, 도서관은 지식정보가 생산·제품을 거쳐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사회에 효용가치를 논증하지 못하면 존재기반이 극도로 약화된다.

둘째, 최근에 도서관의 실물공간 및 지식정보 시스템으로서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디지털 패러다임, 인터넷 정보유통, 모바일 이용행태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식정보 이용자는 도서관보다 정보생태계 총아로 부상한 'Google이나 Naver'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도서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는 법제와 정책,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 등이다. 이들은 도서관의 인프라 확충, 관리운영 방식, 서비스 메뉴를 좌우한다. 반면에 자연생태계는 비생물적 인자 중에서 기후인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넷째, 도서관 생태계를 주도하는 생산자 및 분

해자는 사서직 중심의 인력이다. 그들이 수집하는 자료의 다양성, 분석·가공 및 DB 구축, 지식정보서비스 품질,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생태계의 그것보다 훨씬 대대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 생태계는 이용집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관심과 기대, 요구수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편차도 극심하다. 따라서 생태계에서 강조되는 종의 다양성 못지않게 자료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중시할 때 지식생태계를 주도하거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요컨대 도서관 생태계의 미시적 스펙트럼은 지식정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지만, 거시적 스펙트럼은 정책, 출판, 이용, 기술 등의 생태계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 순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생태계를 편입시키고 평형을 유지해야 생태계도 건강할 수 있다.

2.2 도서관 생태계의 원리와 지형

2.2.1 도서관 생태계의 원리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종이 살아 움직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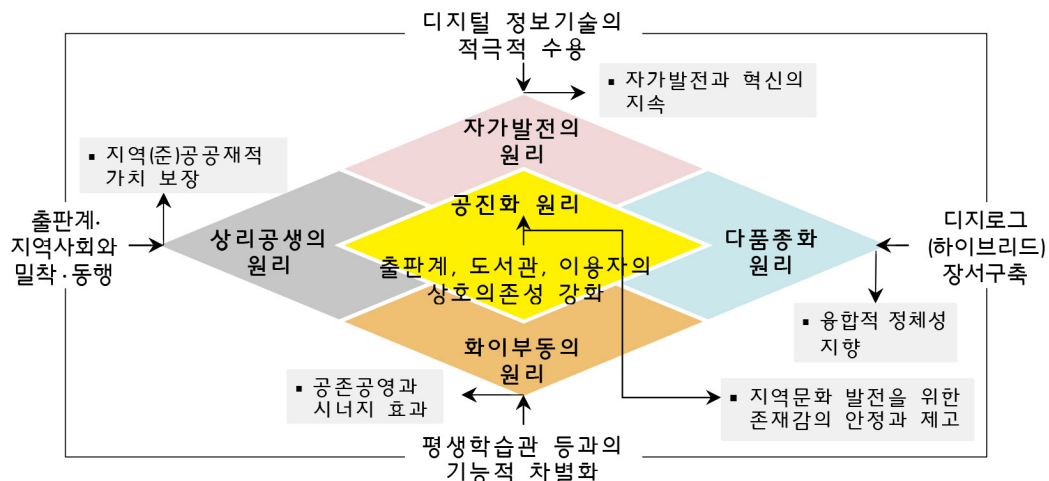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균형을 유지한다. 거기에는 종을 유지·발전시키는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공공도서관 생태계에 차용하면 <그림 2>와 같이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자가발전(self-development)의 원리이다. 이것은 조직개생 원리로도 지칭되며,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통제·조정하지 않아도 생태계 자체의 성장기제에 따라 발전하는 원리이다. 이를 방증하는 공공도서관계 사례가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극적 수용이다. 인쇄자료 중심의 장서개발과 대출업무에 주력하던 도서관계는 온라인 정보유통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DB 구축, 인터넷 검색시스템 도입, 전자자료(E-book, Web DB, 전자잡지 등) 제공,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가상서고 구축, 모바일 서비스, EDDS(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자가발전과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다품종화(multi products) 원리로 자

연생태계의 잡종강세 법칙을 말한다. 이종교배를 통한 잡종화에 대한 고정관념 중의 하나가 품질수준 저하이다. 그러나 다품종화 원리는 잡종을 당연지사로 수용하는 자세를 전제로 한다. 이종교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지로그(아날로그+디지털) 기반의 하이브리드 장서구축을 들 수 있다. 실물서가에 가상서고를 추가하는 융합적 정체성을 지향함으로써 온라인 및 디지털 패러다임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지식생태계를 선도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저가형 지식정보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대체되는 지식생태계 선순환 과정을 촉진한다.

셋째, 화이부동(harmonization)의 원리이다. 자연생태계에서는 ‘불일불이의 원리’로 회자되고 있는데, 생태계 구성요소 간에 상대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와 평형을 유지하는 원리를 말한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다. 전자는 장서중심의 지식정보서



<그림 2>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원리(법칙)와 용례

비스에 치중하고 후자는 강연·강의·탐방 위주의 프로그램서비스에 주력함으로써 화이부동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요컨대 도서관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여 상대를 고사시키거나 공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체성과 기능성을 인정하고 공존공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방점을 둔다.

넷째, 상리공생(mutualism)의 원리이다. 생태계 구성요소가 이익을 수수하면서 공존하는 원칙을 말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생태계의 구심체임에도 출판계, 인터넷과 정보기술,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서관이 출판계와 밀착하지 않으면 자료(중)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와 동행하지 못하면 서식지가 고사될 것이며, 취약한 검색기능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외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편리공생(commensalism)이 아닌, 상리공생이 적용될 때 사회를 위한 지방공공재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공진화(coevolution)의 원리이다. 도서관 생태계의 요소들이 상호의존하면서 상리공생 원리에 따라 함께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집단이 출판계, 공공도서관, 이용자이다. 출판계는 최대 제도시장인 공공도서관의 구매력이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여 재투자에 따른 고품질 출판이 가능하고, 도서관계는 우수한 출판물이 많을수록 장서구성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가운데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적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우수한 원고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출판계 및 이용자와의 상호의존성 강화를 바탕으로 공진화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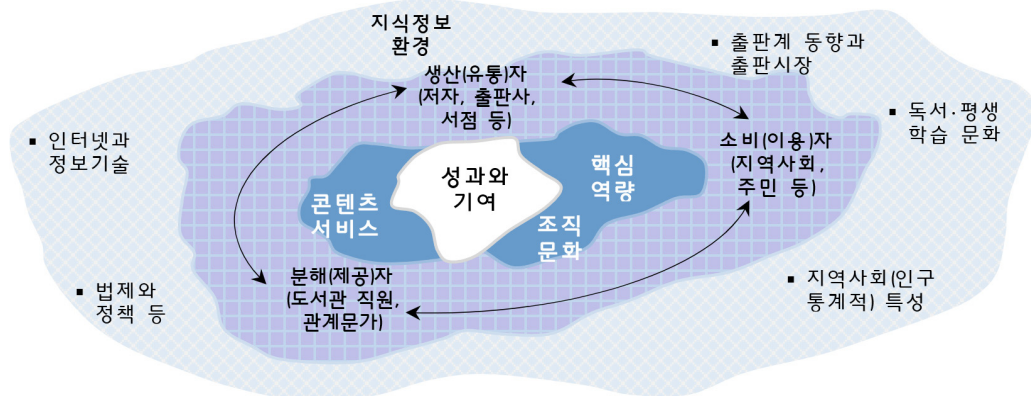
이처럼 생태학적 논리를 차용한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원리는 자가발전, 다품종화, 화이부동, 상리공생, 공진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생태계의 금과옥조라 할지라도 출판계 및 이용자가 공진화하는 방향으로 출판진흥 및 출판시장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접근·이용 편의성 강화와 지식수준 제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지식생태계에서 존재기반의 지속적 안정과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2.2.2 도서관 생태계의 지형과 구조

도서관 생태계의 지형과 구조를 이해하려면 다른 생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생태계는 비생물적 인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기술생산자(공급자), 수요자, 주변 환경(정책, 인프라)이다. 지식생태계도 지식의 창출주체, 활용주체, 미디어, 환경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어진원, 정은지 2013, 24).

이러한 생태계 구성요소를 차용한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지형은 〈그림 3〉과 같이 지식정보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여건, 지식생산(유통)자, 지식분해(제공)자, 지식소비(이용)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순환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본구조로 한다. 순환성은 ‘분해되지 않으면 생산될 수 없고 생산되지 않으면 소비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상호의존성은 ‘도서관이 스스로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식정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각 구성요소의 주체, 역할, 상호의존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 환경은 자연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된다. 공공도서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는 출판계,



〈그림 3〉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지형

인터넷과 정보기술, 법제와 정책, 독서 및 평생 학습의 문화, 지역사회적 특성 등이다. 출판계는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대출·열람서비스, 인터넷과 정보기술은 건물과 장소로서의 정체성 확장, 법제·정책 등은 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후진제도 개혁, 독서·평생학습 문화는 도서관의 운영방향과 프로그램서비스, 지역사회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기대수준 등은 주력 서비스 집단의 설정, 개관 및 폐관시간의 탄력적 운용, 주제별 장서구성과 특성화, 각종 프로그램 개설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요소 중에서 지역사회는 공공도서관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재로서의 재화적 가치와 지역문화 인프라로서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요체이다.

둘째, 지식생산(유통)자는 자연생태계에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저장하여 영양물을 만드는 생물군’처럼 사실·데이터·정보를 조합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저자(학자, 작가 등), 창출된 지식을 가공하는 출판·제작사, 그리고 제품화된 지식을 유통시키는 서점·중개상과 인

터넷 사이트 등이다. 지식생산자는 형식지와 암묵지를 조합·가공하여 신지식을 창출한다. 또 다른 지식생산자인 출판·제작사는 생산된 원고를 다양한 포맷과 버전으로 상품화하고 지식유통자인 서점·중개상은 출판시장을 통하여 보급하거나 인터넷에 탑재한다. 이러한 생산·유통과정을 거친 사적재(자료)를 구입, 수증,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여 공공재로 격상시킬 때 무료이용과 만인공개를 위한 공공도서관 생태계가 평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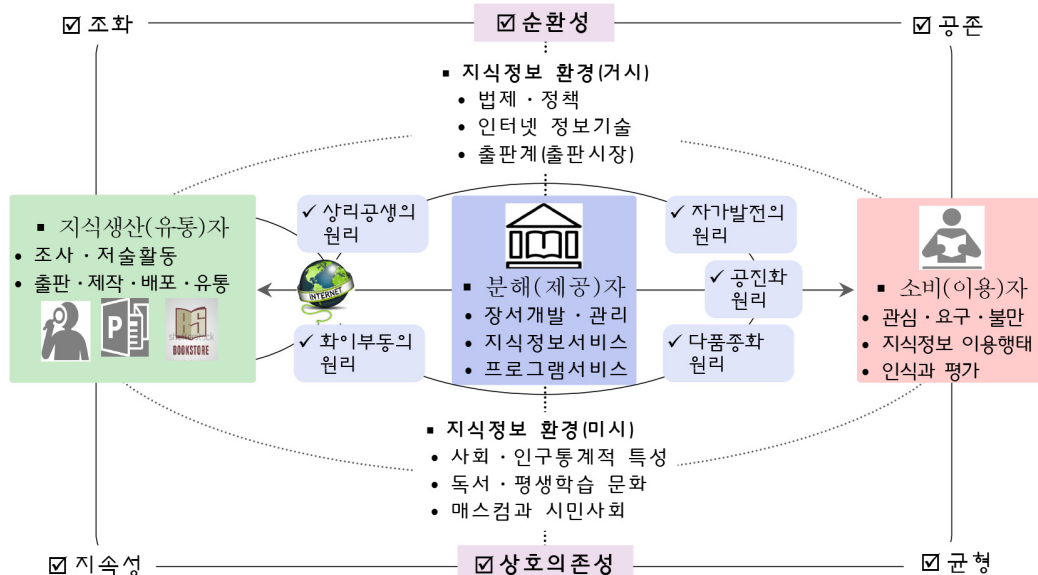
셋째, 지식소비(이용)자는 자연생태계에서 ‘다른 동식물을 먹고 사는 생물군’을 지칭하는 소비자처럼 도서관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장서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 단체 등이다. 다만, 소비집단이 대체로 동질적인 다른 관중과 달리, 공공도서관 소비자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은 매우 이질적이다. 가령 주중의 정규 개관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대개 전업주부와 미취학 아동, 노인, 취업준비자 등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은 대체자료, 모국

어 자료,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요컨대, 지식소비(이용)자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심과 기대, 요구와 불만 등은 장서관리, 정보서비스, 검색시스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공간구성과 편의시설, 소비행태 등 지식을 생산·제작 및 제공하는 주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지식분해(제공)자는 자연생태계에서 '사체나 배설물 등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어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군'처럼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를 분석·가공하여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이를 방증하는 행위로는 서지DB 구축, OPAC 검색구조 및 디스플레이의 최적화, 온라인 검색시스템 제공, 주제게이트웨이 사이트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 자료이용 및 검색 교육, 독서지도,

제작·폐기,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장서의 신신도를 높이는 제작과 폐기는 지식소비자의 접근·브라우징에 따른 기회비용과 불만을 저감시킨다. 또한 하이브리드 장서의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이용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자료이용을 촉진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생태계는 지식정보 환경, 지식생산(유통)자, 지식소비(이용)자, 지식분해(제공)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생태계의 핵심가치는 상관성, 자기조절 및 순환성, 생태구조 및 특성의 표현성, 보존·위협에 대한 대체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존, 균형, 지속성이며, 선순환구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기본원리 및 핵심가치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기본구조는 <그림 4>처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기본구조

3.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현실과 전략

3.1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현주소와 인식

모든 공공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습득, 독서활동, 문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 시설과 공간의 활용 등을 위한 지방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들의 지적 역량 및 인문정신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그 총체적 결과가 지역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문화선진국을 견인한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도서관정책에 근거하여 일선의 도서관계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집단의 시각은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비롯한 매스컴과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민낯과 속살, 본질적 정체성과 중요성, 핵심 인프라와 운영방식, 각종 서비스, 시설과 공간, 삶의 안식처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적합한 장면을 발췌·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식정보 환경 중에서 정책부문은 2014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에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개체수, 장서, 인력) 및 협력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은 장면 1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면 1: 공공도서관 950개관 돌파, 지역문화 거점으로 거듭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공공도서관은 총 968개관으로 증가하고, 장서는 500만 권이 늘어난다 ...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1.8권으로 증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대상 도서관을 총 395개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생태계에서 지식정보 소비자 지역주민이다. 지식정보 분해(제공)자인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은 장면 2-3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면 2: 도서관을 지식놀이터로

미국 LA에 머물렀을 때 미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접하면서 충격과 부러움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은 시험 공부하는 곳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미국은 도서관 본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 부산은 공공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져 실제 시민들이 도서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또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서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서관 운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950개관 돌파, 지역문화거점으로 거듭난다,” (2015).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033

2) 김희국, 유정환, 정홍주, “도서관을 지식놀이터로,” (2016).
http://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type=adm&bbs_code=bbs_12&bbs_no=24635; 최혜자, 캐나다에 말 걸기(서울: 아담북스 2014), p.64.

영 자체가 부실한 곳이 많았다 ... 엄밀히 따지면 도서관의 본래 모습이 지식놀이터였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장면 3: 캐나다에 말 걸기

내가 감동한 것은 책을 읽는 밴쿠버 사람들의 태도이다. 이곳에서는 한꺼번에 39권까지 15-30일까지 빌릴 수 있다. 실제로 중앙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한꺼번에 20-30권을 빌려 작은 수레에 밀고 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도 기적의 도서관 운동이나 작은도서관 운동 같은 국민운동에 힘입어 도서관이 이전보다 생활 속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밴쿠버의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죽어라 공부하는 열람실이 없다는 것이다. 책은 문화이지 교재가 아니다.

셋째, 공공도서관 생태계에서 지식정보 분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인프라와 운영방식이다. 이에 대한 인식은 장면 4-5³⁾가 대변하고 있다.

장면 4: 선진국에 비해 도서관장서부족 태반

정부는 도서관을 늘리기 위해 곳곳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도서관수를 늘리기에 불과한 '성과주의' 라는 비판이다. 또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는 1.43권으로 미국(2.64권)이나 일본(3.13권)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발맞춰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구할 수 없는 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만큼 양적·질적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면 5: 도서관을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2000년 이후 지자체는 공공도서관을 앞 다투어 설립해 약 800여개관이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핵심인 도서관의 장서와 전문인력은 형편없는 실정이며, 도서관 운영을 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도서관) ... 이와 같은 현상들을 접하면서 도서관 건립이 행정당국의 자리 만들기로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지 진정 도서관을 지식정보와 문화중심의 센터로 보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넷째,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일상적인 풍경. 매스컴과 시민의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서비스 만족도, 시설·공간의 편의성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식은 통상 양단을 오가는 시계추처럼 매우 우호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장면 6-8⁴⁾이 방증한다.

장면 6: 4년 넘는 도서관 이용 후기

도서관 때문에 근처로 이사까지 오기도 했다. 그

-
- 3) 이민호,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 도서관·장서부족 태반," (2013).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5>>:
 이정연, "도서관을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2015).
 <http://transpoet-textcube.blogspot.kr/2015/05/blog-post_59.html>
 4) 이선희 가족, "4년 넘는 도서관 이용 후기" (2016).
 <<http://www.gunpolib.or.kr/bbs/Detail.ax?bbsID=7&articleID=10591&brchCode=>>:
 장정옥, "양산시립도서관, 작은 불편 모여 큰 불만," (2014).

동안 책을 빌리면서 권수가 5권에서 7권으로 올라가 너무 좋았다 ... 작은도서관은 이용하고 싶은 책의 부족함 때문에 1년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많은 책을 대여하는 시민의 경우 더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 더 많은 여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산본도서관 어린이실이 다른 도서관보다 많은 이용객에 비해 가장 적은 인원으로 피곤할 텐데도 항상~~친절하게, 웃으면서 대응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감동 많이~~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장면 7: 시립도서관, 작은 불편 모여 큰 불만
시립도서관에 대한 작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복잡한 동선 탓에 휠체어 장애인은 건물 전체를 오르내려야 하고, 오후 7시가 넘으면 식사 한 끼 해결할 곳이 없다. 이런 사소한 불편들이 쌓여 큰 불만이 되고 있다. 현재 양산시립도서관은 모두 3기의 승강기가 가동 중이다. 이들 승강기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운행 층을 제한하고 있다 ... 한 휠체어 장애인은 “여름철 전력난에 따라 승강기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같은 보행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며 “한 층을 이동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장면 8: 공공도서관 일반열람실 축소 나서 시민들 불만 클 듯

대구지역 공공도서관들이 ‘공부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일반열람실(학습실) 축소’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열람실을 없애자니 이용자들의 항의가 격정스럽고 그대로 두기에는 공간 활용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하인 데다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20-30% 열람실 좌석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경기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들 비롯하여 시험기간에는 몰려드는 학생들로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열람실 축소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

다섯째, 공공도서관 생태계에서 일반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불황기와 이용실적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적 침체기에 들어서면 공공도서관을 향한 지역주민의 발걸음이 잦아진다. 이러한 풍경의 압권이 장면 9-10⁵⁾이다.

장면 9: 불황 탓 공공도서관이 붐빈다

요즘 매일 서울 광장동의 한 구립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상영 등 도서관 프로그램에 이용한다. 송파구의 회사원 백모씨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인근 공공도서관에 간다. 하루 종일 책을 본 뒤 저녁까지 먹고

〈http://ys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190&idx=61486〉:

이은경, “공공도서관 일반열람실 축소 나서 시민들 불만 클 듯,” (2008).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80801.010060732270001>〉

5) 민상식, “불황 탓 공공도서관이 붐빈다,” (2012).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1105000151>〉: 박상철, “50대 실직자에게 도서관이 삶의 구원처가 된 까닭은?” (2016).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60119164&nidx=19165>〉

집으로 향한다 ... 불황에다 은퇴자·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공공도서관이 붐비고 있다 ... 경기침체에 따른 가게 부담으로 책 구매를 꺼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수요가 늘었다.

장면 10: 50대 실직자에게 도서관이 삶의 구원처가 된 까닭은

실직한 내게 도서관은 몸과 마음의 구원처였다 ... 예전 종로거리를 지나치며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앞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햇빛 바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노년도 저렇게 우울할 것인지 걱정할 적도 있지만 도서관의 책과 프로그램들이 그런 걱정을 지울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사계절을 도서관에서 보낸 나는 마침내 재취업이 됐고 정신없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느라 도서관에 자주 들르지 못해 아쉽다.

요컨대 지식문화 생태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일상적인 풍경은 우호와 적대, 만족과 불만족, 원직 고수와 현실적 불가피성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풍경과 인식의 장면은 인터넷 자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민낯과 속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3.2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분석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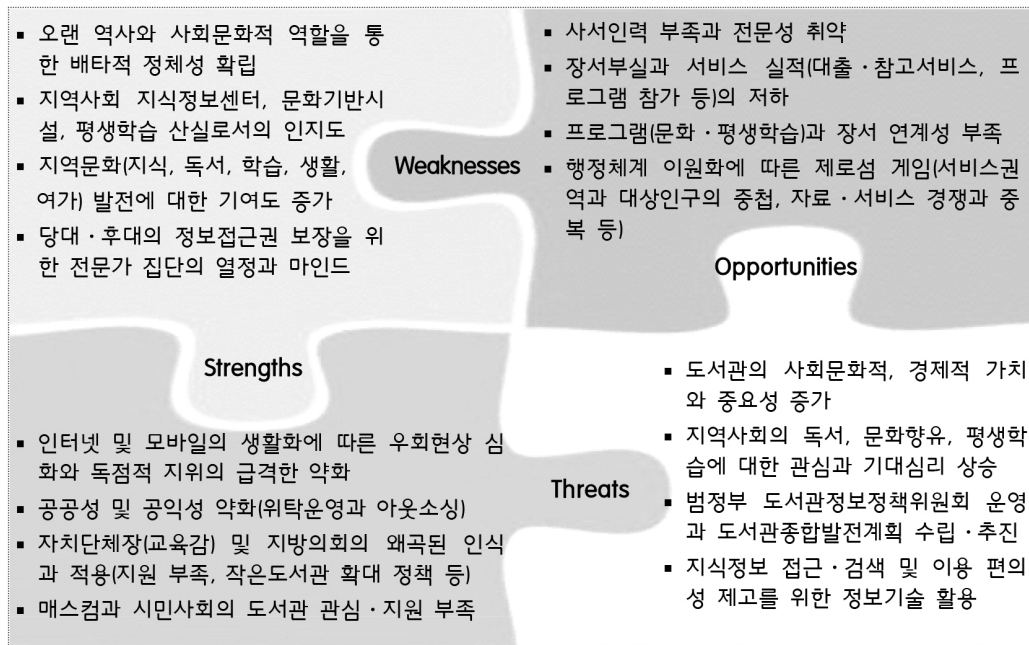
3.2.1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SWOT 분석

이미 <그림 3>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공도서관 생태계는 지식정보 환경, 지식생산(유통)자, 지식소비(이용)자, 지식분해(제공)자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지식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출판계, 인터넷 정보기술, 법제와 정책, 독서·평생학습 문화, 인구통계적 특성), 지식정보를 생산·유통시키는 주체(저술가, 출판제작사, 서점 등), 지식정보 이용자 및 각종 기관은 외생적 생태계인 반면에 지식분해자인 공공도서관은 내발적 생태계에 속한다. 전자의 기회 및 위협을 후자의 강점 및 약점과 조합하여 SWOT 분석하면 <그림 5>와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강점(Strengths)은 오랜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을 통하여 배타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문화기반시설·평생학습 산실로서의 인지도가 높으며, 지역문화(지식, 독서, 학습, 생활, 여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전문인력의 애타적 서비스 철학과 실천의지는 다른 조직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 내재된 최대 약점(Weaknesses)은 사서의 부족과 전문성 취약이다. 그 결과로 장서부실에 따른 서비스 실적(내관자, 대출·참고서비스, 프로그램 참가 등)의 저하, 각종 프로그램(문화, 인문학, 평생학습)과 장서의 연계성 부족이 초래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 권역과 대상인구의 중첩, 자료 및 서비스의 경쟁과 중복 등이 불가피한 행정체계 이원화도 해결해야 할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공공도서관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기회(Opportunities)도 많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이 대표적이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공공



〈그림 5〉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SWOT 분석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사회의 독서·문화향유·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정보기술은 지식정보의 접근·검색·이용 편의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협(Threats)도 적지 않다.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인터넷 및 모바일의 생활화에 따른 우회현상 심화와 독점적 지위의 급격한 악화이다. 이를 부채질하는 위협이 문화재단 등의 위탁운영과 무분별한 아웃소싱이 초래할 공공성 및 공익성의 지속적 약화이다. 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지방의회의 왜곡된 인식, 매스컴과 시민사회의 관심 및 지원 부족 등도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

3.2.2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개선·확장 전략
국내 공공도서관 생태계는 SWOT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교란징후로 매우 불안정하다. 이에 약점과 위협요소를 기준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차용하여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고 개선·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Law of Karma의 적용: 도서관의 정체성 및 공공성 보장

불가에서는 카르마(Karma)를 ‘중생이 신구의(身口意)로 짓는 선악의 소행’, 즉 ‘업’으로 해석한다. 그것의 종자는 생각(의)이고, 열매가 행위(업)이며, 영혼에 기질로 자리잡아 새로운 생각을 잉태한다. 따라서 카르마 법칙의 요체는 연기론과 인과응보이며, 인(직접적 원

인)과 연(간접적 원인)이 업(과)을 낳고 보를 수반한다는 논리이다. 세간에서의 ‘뿌린 대로 거둔다’와 출세간에서 회자되는 ‘일체유심조’는 카르마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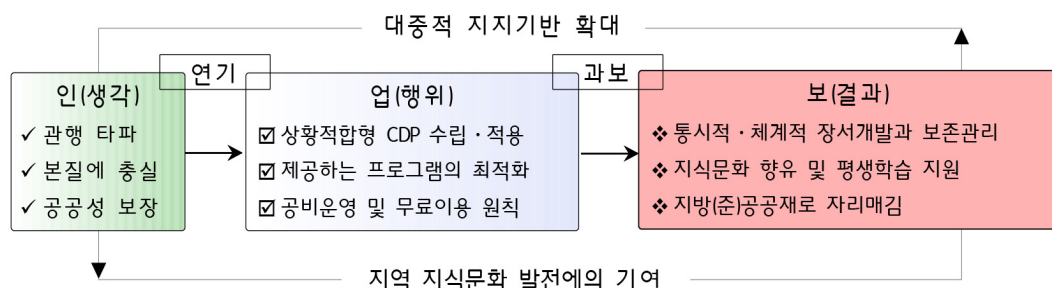
이 법칙의 담론적 배경과 논거는 인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본질과 원칙에 소홀함으로써 과가 정체성 및 공공성의 약화로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카르마 법칙이 여지없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영역이 ‘정체성 및 공공성’이다. 그 본질적 정체성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수집·보존·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지식습득, 학습활동, 독서, 여가향유 등)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정보 중심의 문화기반시설이다. 그런데 <그림 6>처럼 장서개발정책(CDP)의 부재나 부실이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방만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식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격하시키며, 수익창출 심리가 시설·공간 등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요컨대 인(관행 중시, 실적 위주, 수익창출 심리)이 업(CDP 부실, 방만한 프로그램, 사용료 부과)을 낳고 보(정체성·공공성의 훼손)를 수반하고 있다. 그 파장이 국가 및 사회로

확산되면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가치가 하락하고 생태계의 근간인 존립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카르마 법칙의 요체인 인(맞춤형 CDP의 수립·적용, 프로그램 최적화, 공비운영 및 무료이용)에 충실할 때 업(체계적 장서개발과 보존, 문화·평생학습 지원, 지방공공재)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대중적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 공공도서관 생태계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Minerva's syndrome의 극복: 사서직의 주체성 및 전문성 강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네르바(Minerva)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인 제우스(Zeus)와 메티스(Metis) 사이에서 태어난 아테나(Athena)와 동일시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미네르바와 같은 가상의 영웅에 의지하려는 심리적 현상이 미네르바 증후군(Minerva's syndrome)이다. 대개 나약한 주체성, 무기력증 등으로 인한 의타심, 희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인물이나 집단에 나타난다.



<그림 6> 카르마 법칙을 적용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공공성 보장

이를 차용, 담론화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핵심 영역인 '사서직'에서 미네르바 증후군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사서직은 장서관리, 자료정리, 지식정보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인터넷에 이은 디지털 패러다임과 모바일의 보편화로 지식분해(제공)자로서의 지위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도서관 우회현상, 정리업무 아웃소싱, 대출 실적 및 참고서비스의 지속적 감소, 외부 의존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증가 등이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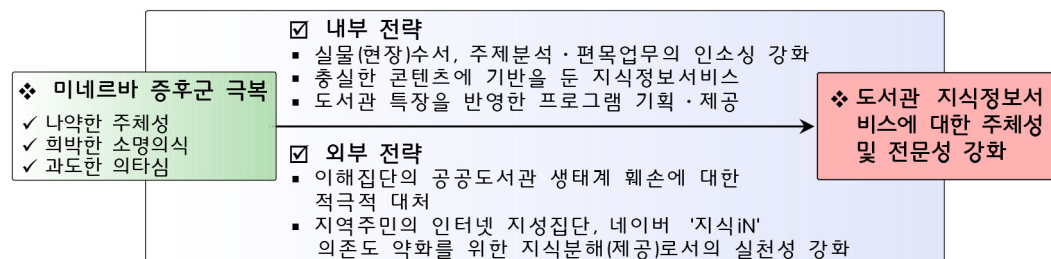
사서직은 '책(지식정보)과 이용자(기대·요구)에 정통하고 중개기능과 외연확장에 주력하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그림 7>처럼 나약한 주체성, 희박한 소명의식, 과도한 의타심으로 대변되는 미네르바 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이며, 종착지는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주체성 및 전문성 강화이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실물(현장)수서 확대, 주제분석·편목업무의 인소싱 강화, 충실한 콘텐츠 기반의 지식정보서비스, 도서관 특장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 등에 주력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여러 이해집단의 공공도서관 생태계 훼손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인터넷 집단지성(위키피디아 등)과 네이버 '지식iN'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

시키기 위한 지식분해(제공)자로서의 실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Pareto principle의 응용: 자료서비스 및 장서관리의 최적화

1897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A. Pareto)는 '기업 수익의 80%가 20% 고객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대다수 상황에서 20%의 요인이 80%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Pareto 1897, 485-502). 이를 경영학에 도입한 주란(J.M. Juran)에 의해 공식화된 용어가 소위 '파레토 법칙, 파레토 원리, 80-20 Rule' 등이다. 그 반대인 롱테일 법칙(long tail law)은 2004년 앤더슨(Anderson 2004)이 명명한 것으로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역파레토 법칙을 말한다.

그 가운데 파레토 법칙은 오래 전부터 대출연구 등에 적용된 바 있고, 롱테일 법칙은 도서관계의 다양한 정책적 및 전략적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대 법칙이 작동하는 공공도서관 생태계로는 핵심역량과 직결되는 장서관리와 대출서비스 외에 이용자 인식과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물량확충 위주의 장서정책을



<그림 7> 미네르바 증후군의 극복을 통한 사서직의 주체성·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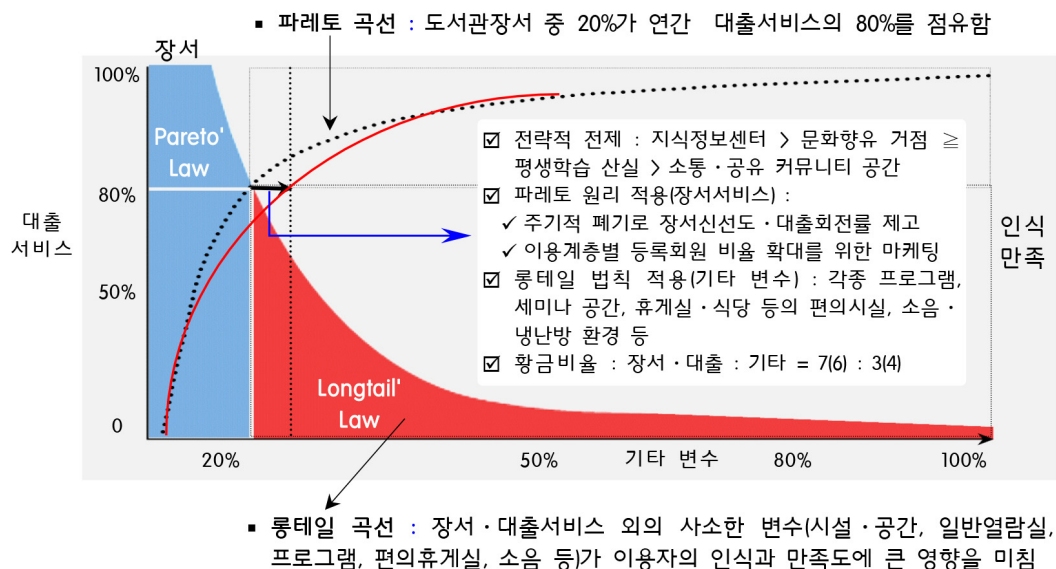
구사한 도서관계는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자 자체 제적·폐기에 이어 공동보존서고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에 금과옥조로 삼았던 방문자수, 대출건수, 참고서비스의 감소추세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대책이 부재한 채 시설·공간 리모델링, 문화·평생학습·인문학 프로그램의 확대, 일회성 이벤트 등에 혈안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그림 8>처럼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위상강화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문화향유, 평생학습,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레토 원리가 적용되는 장서관리 및 대출서비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제적·폐기하여 장서신선도 및 대출회전율을 제고시키는 가운데 이용계층별 등록회원 비율을 확대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 세미나 공

간, 휴게실·식당 등의 편의시설, 소음·냉난방 환경 등에는 롱테일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티끌 모아 태산'을 강조하는 롱테일 법칙이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파레토 원리를 지배할 경우, 생태계의 건강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4) Halo effect의 해소: 일반열람실 축소와 비교우위 프로그램서비스

1920년 미국 심리학자 손타이크(E. Thorndike)가 명명한 후광효과(Halo effect)는 대상을 평가할 때 일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전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일종의 지각적 오류 내지 인지적 편견, 하나의 특성이 전체를 대변하여 왜곡되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부정적 인식이 초래하는 현상을 '부정적 후광효과'라 한다.



<그림 8> 파레토 원리와 롱테일 법칙을 응용한 자료서비스 및 장서관리의 최적화

이를 공공도서관 생태계에 적용하는 명분은 일반열람실과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부정적 후광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한국적 특수성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선의로 표현하면 자유열람실이지만 냉소적으로 보면 개인독서실과 다를 바 없는 공부방이다. 그래서 공적 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열람실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적 테마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위 '도서관 열람실이 공부방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과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반박이 그것이다(윤희운 2014a, 21). 후자는 국가도서관통계사이트에서 최근 3년간(2012-2014) 누적 강좌수 및 참가자수를 집계하면 각각 130,167회(도서관·독서관련 65,335회 + 문화 65,072회)와 3,000만명을 상회함으로써 연간 1천만명 이상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양대 프로그램의 1회성 강좌수 및 참가자수를 합산하면 연평균 강좌수는 74,734회, 참가자수는 2,1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41.8%가 매년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인문학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윤희운 2016, 11-12).

이에 따른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부정적 후광효과와 경우, 전자는 소위 '도서관의 공부방화'라는 비판과 '이용자 자유의 침해'라는 대립적 구도이며, 후자는 유사기관과의 갈등을 넘어 평생학습관과 동일시하는 현상이다. 사설독서실과 다를 바 없는 일반열람실 문제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공공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소통·조율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설 공공도서관은 처음부터 공간계획에 반

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프로그램은 구조조정과 함께 도서관의 특장을 반영한 생활밀착형(사회문제 해결, 인문지식 습득, 치유와 카운슬링, 취약계층 특화형, 생애주기 연계형 등)을 통한 내적 충실화 및 외연 확대에 주력할 때 다른 문화·평생학습시설과 차별화되고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5) Gauss distribution의 준수: 생애주기별 이용편차 해소

1809년 독일 수학자 가우스(C.F. Gauss)는 각종 물리학 실험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측오차에 대한 확률분포로서의 가우스 분포(Gauss distribution)를 제시하였다. 이 분포는 연속형 변수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확률 모형으로 정립됨에 따라 정규분포로 회자되고 있다. 어떤 현상을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으면 통계적 추정도 가능하므로 고객계층의 다양화, 연령별 격차 해소, 공공재의 평등한 이용, 여론조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가우스 분포에서 이탈되는 공공도서관 생태계로는 이용자의 계층별 비율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권역 내의 모든 이용계층에게 지식정보, 각종 프로그램, 시설과 공간 등을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생애주기별 계층이 취득한 도서관 회원자격, 방문이용, 대출서비스 실적, 프로그램 참여 등은 정규분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예컨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등록회원의 이용계층별 비율은 아동 13.7%, 청소년 13.1%, 성인 73.2%⁶⁾로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skewness)가 심하다.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유아 8.9%, 초등학생 16.0%, 중고등학생 14.4%,

성인 60.7%로 편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태승, 김은자 2008, 319). 선박이 균형추 기능을 상실하면 복원력을 잃고 좌초하듯이 이용계층의 극단적 쏠림은 공공도서관 생태계를 위협하는 징후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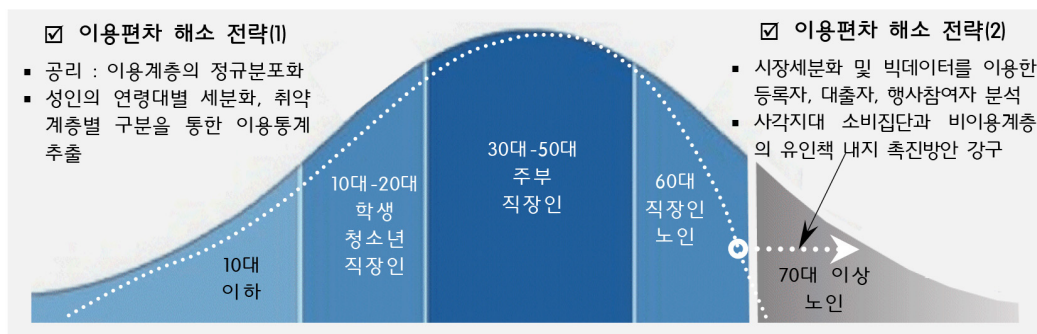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려면 <그림 9>처럼 이용계층의 정규분포화를 공리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성인 소비집단을 연령대로 세분화하거나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분한 이용통계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세분화 및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하여 등록회원, 방문 대출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의 소비집단과 비이용계층에 대한 유인책 내지 촉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United Nations 2011, 103-107)이므로 노인의 공공도서관 소비집단화는 시급하다. 비대칭 이용계층을 방지한 채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공공재인 동시에 지식문화 기반시설'이라는 구호는 언어의 유희이며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6) Icarus paradox의 반추: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과 이용친화형 공간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Icarus)는 다이달로스(Daedalus) 아들이다. 주신 제우스와 페니키아 공주 유로파(Europa)의 아들인 미노스(Minos)가 초대 왕으로서 크레타를 통치할 때 왕실 건축가 겸 공학자로 활약하던 다이달로스는 왕비 파시파에(Pasiphae)의 부정을 도운 이유로 미궁에 감금되었다. 이에 다이달로스는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Icarus Wing)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탈출하던 이카루스는 태양 근처에 갔다가 밀랍이 녹아 에게해에 추락하였다. 이카루스는 우매하고 과욕한 인물로, 이카루스 날개는 과욕한 인간의 추락을 비유할 때 사용되지만, 역설적 함의는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카루스 역설을 공공도서관 생태계에 차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과 이용자 친화형 공간구성이 '비상과 추락'을 대표



<그림 9> 가우스 분포 준수를 통한 이용(방문)편차 해소 전략

6)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publicLib/unitStats/getUnitStatsPop.do>>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자를 대변하는 노력이 정보기술 이용환경의 제공, 전자도서 수용,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이라면, 후자를 상징하는 사례는 카페 같은 도서관, 놀이터를 방불케 하는 자료실, 쇼핑몰과 유사한 공간 등이다. 모두가 시대사조를 반영하기 위한 비상(非常)의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추락이 우려되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료유형별 통합검색 기능이 허술한 시스템, 주제 게이트웨이 사이트의 부실, 자료선택 기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패키지형 전자도서의 무분별한 수용, 소란스럽고 산만한 분위기, 하드웨어(시설과 공간) 중심의 사고, 소규모 세미나실·사랑방 부족 등이 지식·독서문화의 베이스캠프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 속의 이카루스 날개에는 비상과 추락이 중첩되어 있다. 이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스트리아 여류시인 바하만(I. Bachmann)이 1947년에 발표한 시제가 '유희는 끝났다'(Das Spiel ist aus)이며, 그 중에서 '추락하는 모든 이에게 날개가 달렸네요'라는 구절에 주목한 이문열은 1988년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를 차용하면 '공공도서관 생태계가 불안한 것은 이유가 있다'로 표현할 수 있다. 시류에 영합할 의도로 디지털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이용자 친화형 공간을 창출하더라도 본질적 정체성이 불안하면 추락이 불가피하다. 그 이유를 반추하여 전자도서 수용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통합검색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식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독서·학습·토론·세미나 공간의 창출에 무게중심을 둘 때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더불어 비상(非常)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7) Gresham's law의 경계: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편입

16세기 영국 경제학자 및 은행가로 활동한 그레샴(T. Gresham)은 소재의 가치가 상이한 복수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로 유통되면 고가치 소재로 제작된 화폐(good money)는 사라지고 저가치 소재의 화폐(bad money)만 통용되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1858년에 맥레오드(H.D. Macleod)는 그레샴 법칙(Gresham's law)으로 명명하였다(Sullivan 2005, 21). 가격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하여 고품질 차가 사라지고 저품질 차만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그레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을 도서관 생태계에 대입하는 명분은 최근의 이전투구형 쟁점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의 대체성 내지 보완성 논쟁'이다. 오랫동안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를 위한 다목적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정책적 추진, 시민 사회의 도서관 운동,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주민의 접근편의성 고려,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공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5천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형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것의 정체성과 지위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의 분관(분실) 내지 서비스 포인트이다. 그럼에도 공공도서관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체제로 호도함으로써 지방행정이나 지역주민의 인식에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양화인 공공도서관과 악화인 작은도서관이 대립구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공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어차피 작은도서관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초월하여 공공도서관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공공도서관은 접근·방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과 협력을 통한 상리공생이 바람직하다.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서비스 권역별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 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분관·분실, 이동문고 등)'으로 체계화하여 기능적 분담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아파트문고, 교회문고 등)'으로 체계화한 공공도서관 시스템 내에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기능적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희운 2014b, 14).

(8) Pompeii paradox의 실천: 소통강화와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서기 79년 8월 24일 오전, 이탈리아 나폴리 연안의 베수비오산(Mount Vesuvius)이 폭발하였다. 두께 4-6m의 화산재가 며칠에 걸쳐 로마 귀족의 휴양지였던 폼페이(Pompeii)를 매장시켜 시민의 약 10%(2천여명)가 사망하였다. 그로부터 1700년간 신의 저주로 봉인되었던 전설의 도시 폼페이는 1861년 고고학자 피오렐리(G. Fiorelli)가 이탈리아 국왕(Vittorio Emanuele II)의 지시 하에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체계적 발굴로 타임캡슐이 개봉됨으로써 은둔의 실체가 드러났다. B.C. 6세기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이 세운 소도시였던 폼페이가 화려한 로

마시대 축소판으로 회자하는 것처럼 대중의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의외로 많은 무지를 드러내는 경우를 폼페이 역설(Pompeii paradox)이라 한다.

이러한 역설을 담론의 근거로 삼는 이유는 공공도서관 생태계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상당수가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가령 여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도서관을 평생학습시설 또는 독서실 공간'으로 생각하고, 행정당국과 공무원들은 '도서관을 단순영조물로 간주하여 위탁관리를 선으로, 직접운영을 악으로' 인식한다. 많은 지역주민과 일각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대체재로 생각하거나 지식정보서비스보다 프로그램 제공을 핵심기능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사서직과 행정직을 동일시하고, 담세주체라는 이유로 시설·공간을 독점하려 한다. 시민사회와 매스컴도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등을 근거로 외설도서, 이념편향 자료, 조악한 만화책 등을 요구한다. 그 외에 도서관계는 콘텐츠 및 게이트웨이 기능의 부실을 방치하고 사회적 설명책임에도 소홀하다.

따라서 폼페이 역설에 상당하는 여러 이해집단의 인식과 행위로부터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전략적 실천이 중요하다. 우선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첩경은 설명책임의 강화이다(Fard and Rostamy 2007, 331-344).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 다양한 문화활동, 평생교육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설명할 때 왜곡이나 무지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이유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려면 소통기능에 주력해야 한다. 신착자료 노

출력(가시성)을 극대화하고, 장서 기반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시도단위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형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역사, 지식문화, 독서활동, 평생학습 등의 메뉴를 공공도서관에 밀착시키는 가칭 ‘도서관 아카데미’ 내지 ‘도서관문화대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문학적으로 각색하여 매년 제공할 때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확장에 따른 사회문화적 중요성 인식, 이용(방문)자 증가, 자료서비스 활성화, 대중적 지지기반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4. 결 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요소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중시하였다. 에토스는 화자의 신뢰성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인품(인격과 역량), 파토스는 대중의 심리적 요구와 정서 등을 자극하는 기법(테크닉), 로고스는 담론과 주장에 대한 논리(이성)를 말한다. 이들이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에토스가 60%, 파토스가 30%, 로고스가 10% 정도로 화자의 논리보다 인품과 감정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고대 이후의 서양 철학계는 이성적 논리와 합리적 주장이 진실의 모태이며 정당성의 초석이라는 논지에서 로고스를 최고 가치로 상정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공공도서관 생태계는 파토스,

즉 지역사회의 정서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가 공공도서관의 아류에 불과한 작은도서관의 무작정 확충기조와 파행적 운영, 상업적 탐욕주의와 자극형 감상주의로 채색된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지적공간을 무색하게 하는 카페 같은 도서관과 소음진도가 심한 개방형 공간구조, 이벤트성 공연과 행사, 단골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는 ‘책 읽는 도시’나 ‘도서관 도시’ 등 포퓰리즘에 기대는 구호와 적용이다. 모두가 위기 징후이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며, 불편한 진실이다. 비록 사회와 주민이 에토스(복잡하고 정교한 논리)가 아닌 파토스(호감적 이미지)에 환호할지라도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고유한 정체성 중심의 핵심역량이다. 그 기반 위에서 창조적인 이미지 전략과 친숙한 풍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초부란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모든 공공도서관은 다목적 기능성, 지식정보의 다양성, 이용계층의 이질성, 여러 문화·학습시설과의 연계성, 다양한 생활동선과의 교차성이 층위를 형성하고 중첩되는 복합적 지식문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변의 에토스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정보, 학습, 문화를 서비스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Kelly 2013, 10). 따라서 지식정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회문화적 기능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식문화의 서식공간, 즉 생태축을 조성·관리해야 한다. 그 해법이 생태학적 사고와 실천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태승, 김은자. 2008. 도서관 이용자 행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311-328.
- [2] 어진원, 정은지. 2013. 『지식생태계 구성요소와 역할』.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3] 유재미, 오철호. 2011. 지식생태계 연구 경향, 한계 그리고 제언. 『정보화정책』, 18(4): 3-21.
- [4] 윤희운. 2016.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담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0.
- [5] 윤희운. 2014a. 국내 공공도서관의 보편성과 특수성 담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5-25.
- [6] 윤희운. 2014b.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5-25.
- [7] 최희운. 2006. 지식생태학 관점에서 본 도서관의 지식관리 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97-416.
- [8] Anderson, C. 2004. *The Long Tail*. Boone, IA: Wired. [online] [cited 2016. 9. 1.]
<http://www.wired.com/2004/10/tail/>
- [9] Bodini, A. and Klotz, S. 2002. "The Science of Ecology for a Sustainable World." I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2. *Knowled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Insight into the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II*. Oxford: EOLSS Publishers: 715-733.
- [10] Fard, D. H. and Rostamy, A. 2007. "Promoting Public Trust in Public Organizations: Explaining the Role of Public Accountability." *Public Organization Review*, 7(4): 331-344.
- [11] Kelly, A. 2013. *A Strategy for Public Libraries: 2013-2017*. Unpublished manuscript. [online] [cited 2016. 10. 9.]
<http://www.housing.gov.ie/sites/default/files/migrated-files/en/Publications/LocalGovernment/PublicLibraries/FileDownload%2C33998%2Cen.pdf>
- [12] Sullivan, N. 2005. "Gresham's Law, Fact or Falsehood?." *Student Economic Review*, 19: 17-25.
- [13] United Nations. 2011.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Vol I : *Comprehensive Tables*. New York: United N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Tea-Seung and Kim, Eun-Ja. 2008. "A Study on the Space Design of Public Library

- Based on User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311-328.
- [2] Eo, Jin-Won and Jung, Eun-Ji. 2013. *Components and Roles of Knowledge Ecosystem*.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3] Yu, Jae Mi and Oh, Cheol Ho. 2011. “A Review of Studies on Knowledge Ecosystem.” *Informatization Policy*, 18(4): 3-21.
- [4] Yoon, Hee-Yoon. 2016. “The Discourses on the Humanities Banque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1-20.
- [5] Yoon, Hee-Yoon. 2014a. “Discourse on the University and Particularity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5-25.
- [6] Yoon, Hee-Yoon. 2014b. “The Plan for Activating Collection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Seoul Metropolita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5-25.
- [7] Choi, Hee-Yoon. 2006. “A Study on Knowledge Management Model of Library Based on Knowledge Ec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397-416.

